

- 조직사업의 내실화
- 지회조직 활성화 지원
- 신규사업 조기 정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 팩스 (02) 3210-1449

6월1일을 사우회 창립기념일로 제정 2억 338만원 예산안 통과 '06정기총회- '지회' · '지회장' · '사무총장' 으로 직명 조정



KBS사우회는 2월 17일 낮 12시 KBS 라디오 공개홀에서 열린 2006년 정기총회에서 '사우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사단법인 KBS사우회 설립허가 일자인 1989년 6월 1일을 사우회 창립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리고 사우회 총회는 총규모 2억338만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해예산은 작년예산 총액과 거의 같으며 지회지원과 친목사업 내용 보완 등을 주요사업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총회는 사우회 정관을 개정, 천명시대위상에 걸맞도록 지부를 '지회'로,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명칭 및 직명을 각각 조정했다.

총회 후 오찬에 참석한 정연주 KBS사장은 "선배들의 고난과 정열이 한국방송의 독보적 위치와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KBS와 사우회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회후 오찬모임에 참석한 KBS 정연주 사장(왼쪽)과 서병주 회장

서병주 회장 총회 인사말(요지)

'노소·선후배간의 벽을 허물자'

회장단과 사무국요원들은 사우회가 해야 할 일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금년중에 방송사 연구모임의 조직화, 홈페이지 기능 확대 강화 등을 올해 관심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방송사연구는 2007년 즉 내년이 한국 방송 80주년이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의 보강은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후배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 그 니즈가 있다.

환경 변화와 세대차와 가치관의 차이등으로 불거진 노소간, 선후배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자.

여러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원끼리 하루에 한번씩 '전화하기운동'을 실천해 나가자.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김두만 / 607-839, 부산 동래구 운천3동 1360 한사람 101-1701 (051-504-3337)
- 이길만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33 현대홈타운 3차 303-804 (02-536-6978, 011-479-7800)
- 김해곤 / 411-73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태양 A. 1703-1402 (031-911-9125, 016-389-6051) khaekon@kbs.co.kr
- 이승의 / 503-818, 광주 남구 서동 261-94 (201호) (062-651-5362)
- 김금동 / 503-301, 광주 남구 백운1동 461-1 목A. 109 (062-673-9783)
- 장명남 / 463-8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림A. 110-2101 (031-713-2797, 011-685-8843) mnchang@naver.com
- 조경남 / 503-062, 광주 남구 불선2동 포스코더샵A. 102-901 (062-682-1947, 011-612-1946) merdian600@yahoo.co.kr
- 우정구 / 158-733, 서울 양천구 목5동 부영그린타운 3A. 1314(02-2647-4323, 011-9630-2322) woojk@kbs.co.kr
- 김진평 / 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4-12(5층) (02-470-7203, 011-9146-0877) jpkim4711@kbs.co.kr
- 이근우 / 680-040, 울산 남구 아음동 일동 미라주A. 103-901 (052-261-6100, 011-862-8811) kw155@naver.com
- 김인홍 / 122-857,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64-36 한창주택 201호 (02-354-4561, 011-688-4563) inhongk@yahoo.co.kr
- 차효석 / 122-899 서울 은평구 역촌1동 43-18 (02-385-2919, 011-231-8611) sha@kbsart.co.kr
- 임동섭 / 530-353 전남 목포시 산정3동 종원 나이스빌 102-901 (061-273-3635, 011-644-8585) ds8585@kbs.co.kr
- 이귀열 / 150-055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355-436 (02-846-6352, 011-758-6352) mkyung@empal.com
- 채치성 / 135-864 서울 강남구 삼성2동 25-27 (403호) (02-3018-3990, 016-850-3253) koneka@hanmail.net 국악방송국 02-581-9901
- 김 탁 / 412-7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샬터마을 1-2단지 108-304호 (031-978-0309, 016-389-0309) takkim@kbs.co.kr

회비내신분

■ 2005년 / 배학철 정성호 진규현

■ 2006년 /

- | | | | | | | | | | |
|-----|-----|-----|-----|-----|--------|-----|--------|-----|-----|
| 김두만 | 김병원 | 김성현 | 고범중 | 김정숙 | 김동원(세) | 김해곤 | 김 목 | 권혁재 | 김 탁 |
| 김승열 | 김영한 | 김 영 | 김진옥 | 김영우 | 김일영 | 김용채 | 김성열(개) | 김봉식 | 김수부 |
| 김용호 | 김현식 | 노완배 | 도문개 | 문무광 | 박중흠 | 박학식 | 방경식 | 배학철 | 배일웅 |
| 변원일 | 박만식 | 박연규 | 서용수 | 서정수 | 송태성 | 신현석 | 서정호 | 성기영 | 송대선 |
| 안진홍 | 오대환 | 유동은 | 윤송남 | 원창호 | 유인화 | 이기창 | 이길만 | 이귀열 | 이선배 |
| 이영준 | 이용복 | 이진선 | 이해균 | 이한동 | 이원균 | 윤성현 | 오현정 | 유병민 | 이원일 |
| 이종일 | 임병운 | 임채기 | 전영우 | 정종일 | 진규현 | 조부성 | 장용섭 | 채치성 | 채철수 |
| 최병일 | 최영배 | 최신이 | 편덕순 | 홍민기 | 한석정 | 허상울 | | | |

■ 2007년 / 임채기

■ 2008년 / 조봉균

1월 26일 ~ 2월 25일 <회비납부일자순>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 ◆E-mail : kbssau@yahoo.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안정환, 차두리 응원의 안방열기가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

MSV 뒤스부르크..안정환

SG 프랑크푸르트..차두리

◆안정환 경기일정◆

3월4일(토) 밤 11시30분 FC 뒤른베르크 vs MSV 뒤스부르크 (생중계)
3월11일(토) 밤 11시30분 MSV 뒤스부르크 vs 하노버96 (생중계)
3월18일(토) 밤 11시30분 SG 프랑크푸르트 vs MSV 뒤스부르크 (생중계)
3월25일(토) 밤 11시30분 MSV 뒤스부르크 vs FC 바이에른 뮌헨 (생중계)

◆차두리 경기일정◆

3월6일(일) 새벽 1시30분 SG 프랑크푸르트 vs VfL 볼프스부르크 (생중계)
3월12일(일) 밤 11시 FC 샤휈04 vs SG 프랑크푸르트 (녹화중계)
3월18일(토) 밤 11시30분 SG 프랑크푸르트 vs MSV 뒤스부르크 (생중계)
3월26일(일) 밤 11시 1FC 쾰른 vs SG 프랑크푸르트 (녹화중계)

클린채널 KBS SKY
www.kbssky.co.kr

대한민국 대표스포츠 채널~
KBS SKY SPORTS

문화산책-⑦



이인홍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현대미술의 거장인 오카모토(岡本太郎)선생을 자택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선생이 제작한 작품인 70년 3월의 오사카 박람회 상징물 '태양의 탑'이 일본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을 무렵이다. 세상을 재미있게 하려면 재미있는 예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의 포프·아트를 그러한 경향의 사회현상이라고 평가한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분의 대화는 그분의 예술만큼 열정적이다. 재미있는 예술이 있어야 재미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지론을 말할 때는 본래 흥조를 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일본을 엄청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던 그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나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기자생활을 하면서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에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흑백의 세계를 탈출해보지 못한 사람이 칼라의 휘황한 영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개념이 몽롱했지만 혁명적인 예술이라는 생각

은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백남준씨는 나에게 설렘과 좌절의 교차로 다가왔다. 그가 한국인인데도 너무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술이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 사회가 엄청 재미있게 될 것 같았다.

1980년 12월 컬러 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색채를 차단하는 흑백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백남준씨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다. 그를 자주 접촉하고 있던 해외공보관의 뉴욕 문화원장 유태

는 길이 트였다. 서울사람으로 복귀한 것이다. 세계를 매혹하는 비디오·아트 창시자가 조국으로 돌아 온 것이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다. 오웰은 1984년 1월 1일 서울을 기지로 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로 위성생방송 되었다. 서울에선 저녁 뉴스 뒤를 이어 방송되었다. 환홀지경의 영상은 움직이는 추상화였다. 생전 처음 영상의 곡예였다. 엄청난 걸쳐쇼크였다. 한국인 백남준의 세계 최첨단 예술이 서울에서 발신되어

남준씨는 반 킬링을 선언했다. '동은 동, 서는 서'라는 킬링의 시어에 '동서는 하나다'라고 대항하면서 킬링은 이제 가라고 했다. 그래서 '바이 바이 킬링'이라 불렀다. 1986년 10월 9일 뉴욕을 위성으로 연결하여 아시아 사람의 제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날 '아시아적 세계'를 선언했다. 세 번째 작업은 서울 올림픽으로 연결되었다. 당연한 코스였다. 85년 2월 내가 KBS를 떠나 지적하기는 하나 거리가 생겼다. 일들이 순탄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올림픽 비디오·아트도 무사히 끝났다.

비디오·아트 창시자의 조국에 그 공적에 알맞는 백남준씨 상징물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준공을 앞둔 국립현대미술관의 나선형 계단에 공간이 생겼다. 장소에 만족한 백남준씨는 작품제작에 들어갔다. 한국에 '비디오·피라미드'를 세우기로 했다. 자금문제는 삼성이 풀어주었다. 그래서 '비디오·피라미드'가 완성되었다. 백남준씨는 '다다이즘'이라 명명했다. 미술관이 86년 9월에 문을 열었다.

올림픽이 끝나자 백남준씨의 예술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신분이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과 현대화랑의 박명자 사장이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집을 함께 겨 주어 한국이 '백남준 비디오·아트'의 발신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겸해 이 글을 쓴다.

(본회 고문, KBS 사장·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백남준과 KBS

완씨가 그 일을 맡아주었다. 그러던 사이 서울 올림픽유치로 매체의 위상이 급상하고 백남준씨의 마음도 동하기 시작했다.

예술과 애국심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술이 애국을 잘 못하면 트로츠키의 혁명예술의 함정에 빠진다. 이데올로기 예술은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먹였던 죄악의 열매를 무차별로 먹인다. 백남준씨는 순수한 예술가로 예술의 도원경을 찾아다니는 구도자였다. 그가 심취했던 플럭서스와 헤프닝, 다다이즘, 아방가르드는 도원경으로 다가가는 예술운동이었다.

백남준씨가 마음을 열어준 것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다. 조지·오웰의 미래소설 '1984년'을 비디오·아트로 한 것이다. 작업을 위해 서울을 왕래하

정월 초하룻날 안방을 찾아갔다.

비디오·아트의 의미는 TV 파괴에 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러더(TV)'를 파괴한 백남준씨의 다다이즘이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웰이 지정한 그 날 지배자의 도구로 타락한 TV를 산산조각 부셔버린 것이다. 비디오·아트는 비디오가 아니다. 파괴된 TV의 시체에 불과하다. 브라운관의 사실적 화면을 자석이라는 몽둥이로 찢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파괴가 색채형성을 주로 하여 새로운 시각을 형성한 것이다. 백남준씨는 '반미디어 주의자'다. 그의 설치예술과 퍼포먼스도 TV를 폐품으로 만들어 용도 자체를 바꾸어버렸다.

오웰의 성공과도를 타고 후속작업을 86년 아시아 경기대회에 맞추었다. 백

회원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구본출 이사 / 아들 구인모 군이 2월 17일 동국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논문은 "한일 비교 문학사 연구"
- ◆ 서정호 / 장남 서영찬군이 2월 15일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에서 한의학박사학위를 받음.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보운당' 한의원을 개업
- ◆ 이후재 / 월간 '스토리 문학' (2006년 2월호) 시부문 신인상 수상-시인으로 등단. 수상시의 제목은 '둔치의 아침' 등 2편. 월간 시사지 뉴시스저널 편집위원으로 위촉 (1월)
- ◆ 정규봉 / ELMUNDO 세라믹 아트 연구소 고문으로 추대됨 (2월), 02)3355-354, 011-269-0077, ckb0810@yahoo.co.kr

자녀결혼

- ◆ 구양술 / 아들 (2/24)
- ◆ 장영수 / 장녀 (2/25)
- ◆ 지중학 / 아들 (3/3)
- ◆ 황철이 / 아들 3월 11일 12시 논현동 전기공제회관 웨딩홀 15층

산수

- ◆ 서용수 / 2월 21일

부음

- ◆ 박기대 / 모친상 (1/31)
- ◆ 박학식 / 상 배 (2/7)
- ◆ 이길만 / 모친상 (2/5)
- ◆ 신창기 / 모친상 (2/20)

고희

- ◆ 장한성 / 2월 2일
- ◆ 강명수 / 2월 9일
- ◆ 신창기 / 2월 10일
- ◆ 김영만 / 2월 20일

별세회원



◆ 윤치호 회우 / 2월 18일 노환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 향년 89세, 유족은 미망인과 2남5녀. 고인은 6.25 동안중지리산 공비들의 준동이 한창인 때인 1951년 KBS 초대 남원방송국장을 역임했다.

수고했습니다

3월말 정년 퇴직자

- ◆ 김진홍 인적자원센터 연수팀
- ◆ 공정표 심의팀
- ◆ 홍성룡 심의팀
- ◆ 장연석 심의팀
- ◆ 송병철 심의팀
- ◆ 한신평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팀
- ◆ 감강생 편성본부 중계제작팀
- ◆ 이석로 편성본부 중계인프라팀
- ◆ 강공운 편성본부 TV송출팀
- ◆ 차만순 보도본부 해설팀
- ◆ 이무영 TV제작본부 제작운영팀
- ◆ 심분녀 TV제작본부 편집기술
- ◆ 안재걸 TV제작본부 드라마기술
- ◆ 김기욱 라디오제작본부 2FM팀
- ◆ 조병두 기술본부 건설기전팀
- ◆ 박건식 경영본부 총무팀
- ◆ 김규학 경영본부 시설관리팀
- ◆ 김대연 경영본부 시설관리팀
- ◆ 이동범 경영본부 재원관리팀-강북
- ◆ 이현원 경영본부재원관리팀-강남
- ◆ 정현모 경영본부 안전관리팀
- ◆ 이정준 경영본부 안전관리팀
- ◆ 윤지중 경영본부 안전관리팀
- ◆ 최선고 부산총국 편성제작팀
- ◆ 최경식 부산방송총국 총무팀
- ◆ 흥기정 광주방송총국 기술팀
- ◆ 오영윤 광주방송총국 기술팀
- ◆ 김동일 목포방송국
- ◆ 윤석기 전주방송총국 총무팀
- ◆ 조영관 대전방송총국 기술팀
- ◆ 양성환 청주방송총국 기술팀
- ◆ 김삼호 충주방송국
- ◆ 이주복 춘천방송총국
- ◆ 조규환 원주방송국
- ◆ 김영창 제주방송총국 보도팀
- ◆ 오용욱 제주방송총국 총무팀

주소변경 회원

- 박남훈 / 158-701,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9층) CBS 방송사업단 사장 (02-2650-7167, 011-9021-7011)
- 조세동 / 156-071, 서울 동작구 흑석1동 328 동양A. 102-1201 (02-824-6301, 011-342-6301)
- 신창기 / 011-864-5843 • 김영만 / 043-283-1125, 011-9980-2130
- 구연도 / 621-020, 경남 김해시 동상동 한덕타워A. 2257
- 우달수 / 701-843, 대구 동구 효목1동 183-5 동원주택 202
- 이창섭 / 210-010, 강원 강릉시 흥재동 536 (1/4)
- 김인규 / 010-9988-0800 • 김인홍 / 011-688-4563

- 광주지회 소식 - 06년 첫 정례회의 개최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수일)는 2월 20일 광주의 한식집 일송정에서 목포, 여수, 순천지역 회우를 비롯해서 모두 37명이 모여 2006년도 첫 정례회를 열고 '05년도 수지결산'과 '06년도 예산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로 고회를 맞는 이성수, 김기천, 심상혁 등 세 회우에게 축의금 전달을 의결했다.

汝脈會 새 집행부 구성

중견 KBS 보도본부 출신의 모임인 여맥회(회장 김은구)는 2월 21일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 부회장 : 김기석, 김인규, 윤한중 ▲ 감사 : 이 휘 ▲ 운영위원 : 강명수, 김선기, 김영규, 고수웅, 권혁부, 남승자, 남승욱, 송경섭, 심재일, 이종문, 홍성규 ▲ 총무 : 박춘병(총괄), 서정혁(회계), 윤기로(홍보)

사우회만평



"생일잔치 떡 벌이자!"

어언 30여 세월 - 그때 우린 새내기였는데

KBS한국방송공사는 금년 3월3일 공사창립 33주년을 맞았다. 1973년 공사창립되던 바로 그해에 입사한 공사공채 1기생들이 벌써 30여년의 근속을 마치고 정년퇴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소회와 바람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공정방송 앞세워 신뢰 폭 넓혀야



김인규 회우

1973년 3월 3일 국영방송이었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라는 이름 아래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한 사실은 방송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국영방송과 민영방송만이 경쟁하던 이 땅에 공영방송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이 해에 KBS 公社 1기로 입사한 만큼 남다른 애정과 가치관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상반되는 모순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방송소유 운영형태이다. 국민이나 시청자 즉 公共이 소유하는 공영방송은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을 뿐 국가나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방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국가이익보다는 국민이익 즉 公益을 먼저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KBS의 33년을 되돌아보면, 공익에 앞서 국익을 지나치게 앞세워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니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감수해야만 했다.

물론 이러한 편파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노골적인 외부압력에서 대부분 비롯되었지만 일부 방송사 고위층의 해바라기성 과잉충성까지 가세하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밤9시 메인뉴스가 '뺑전뉴스'라고 불리고, 급기야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시청료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다.

최근 수신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004년 KBS가 638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1981년에 책정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KBS경영진은 방송위원회에 보고하는 2006년 기본운영계획에는 아예 '수신료 인상'이라는 단어를 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부 정치세력과 사회단체 세력 등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고, 그 대신 드라마 콘텐츠 판매 등 기타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공영방송 33년을 맞아 KBS가 國益보다 公益을 앞세우며 지역별·연령별·계층별·이념적으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의 폭을 하루속히 넓혀나가 반드시 수신료 인상의 벽을 넘어야 한다.

최상 고집하는 풍토이어지기를



강태인 회우

방송공사 1기 신입사원으로 방송국 생활을 시작하여 공사1기 사원중 정년퇴임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에게는 한국방송공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젊은 나이에 청운의 꿈을 안고 한국방송공사 1기사원 공채응시에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입사원서를 내고 남산 방송국을 돌아보며 두근거려던 마음을 나는 33년이 흐른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입사초기의 일들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는 말로 표현될 오랜 일이지만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젊음의 열정 하나로 고달픈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 중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어 네덜란드에 교육가서 주말에는 신나게 여행도 다녔는가하면 위성중계업무를 담당하면서는 외국출장도 심심치 않게 다니며 전문을 넓히기도 했다.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가서는 전 경기장 방송시설을 담당하여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올림픽 개최식을 할 때에는 내가 역사적인 이 행사에 조그마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감격에 벅차 울기도 했다.

나는 KBS에 근무하게된 것을 내 인생에 행운으로 생각한다.

로 생각하며 지금도 내 친정 KBS를 고맙게 생각한다. 선배에게는 보잘 것 없는 일을 하고 내가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후배들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했노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도 달라졌다. 그러나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상의 품질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지만은 변할 수 없다.

지금의 시스템은 선배로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후배가 선배에게 야단맞아가며 일을 배우고 다시 후배에게 야단맞아가며 일을 가르쳐주며 최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에게 전달하던 KBS의 전통과 제작풍토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 전 한 후배가 한말이 생각한다. "선배님, 그래도 선배님은 좋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선배가되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거예요" "글쎄, 그럴까?" 그래서는 안되는데

廣場

국민통합 구현에 앞장서라



박인배 회우

남산골 KBS에서 공사1기생으로 시작해 여의도시대의 방송주역을 다짐하며 제작현장을 누볐던 30여년의 세월이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이념으로 뇌리를 스친다. 나열 흘날리던 1973년 가을에 젊은날의 푸르른 꿈을 안고 남산을 찾았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 얼마전에 정년까지 마치고 지금은 백발이 더 성성한 이순(耳順)의 나이가 됐으니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음을 실감한다.

더구나 올해는 공사창립 33주년이어서 열정과 보람, 그리고 자랑으로 일한 회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솟구치기도 한다. 특히 '3'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믿음과 신념의 숫자이면서 또한 가장 안정감을 주는 등 여러가지 인류학적 상징성을 함축해 보여주기도 한다. '환인, 환웅, 환검'의 단군신화에서의 삼신개념부터 기독교 전통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인 신의 삼위일체까지 '3'이 갖는 숫자의 의미가 각별한데 '3'이 곁친 공사 '33' 주년은 자랑스런 우리들의 KBS가 한층 더 대내외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란 예감

을 준다. 이를 위해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갈등보다 국민통합의 대명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줄것을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당부해 보고자 한다.

최근 KBS를 보는 일부 가까운 시선을 뒤로하며 느끼는 소회는 "공영방송은 누가 뭐래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일본의 NHK를 비롯,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공영방송의 위기는 회사의 수입 감소가 아니라 공정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않고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 방송한다는 공영방송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권력이나 이념, 또는 자본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 등 그 무엇으로 부터도 독립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확고한 제작마인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신뢰감을 주는 뉴스, 국민의 일상생활에 웃음과 희망을 주는 품격있는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의 심금을 파고드는 수준높은 다큐멘터리와 교양, 정보프로그램을 양산해 시청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KBS를 둘러싼 힘든 방송환경과 내부 상황에서 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려운 세월 이겨낸 동지들



최덕웅 회우

저는 공사창립과 더불어 73년 6월 11일 회계직 공채1기로 입사하여 KBS에서 만 3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직한지 2년도 못되었습니다.

입사초기부터 기업예산 회계제도 정착과 수신료 징수제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부터 '뺑전뉴스'니 뭐니하면서 시청자들의 군사정권에 대한 욕구 불만이 KBS로 전이되어 수신료납부 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참사 이래 최초로 자금이 없어 한달간 직원급료를 유보하는 등 위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매서운 비판과 가까운 시선속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을 저는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신료 수입 부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징수원 1200여명의 잦은 태업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임자들이 83년부터 준비해 온 통합공과금 징수 시범지역(서울 용산구, 대전시, 경주시)확대 계획을 88년초 서울 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시 전역과 전국 광역시 그리고 도청소재지의 시로 확대 시행하자 월 570억원의 수입이 한달만에 970억원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90년초에 이르러 전국 20만 이상시로 확대하니 월 1300억원 이상 징수되어 긴박한 재정난을 단숨에

극복했던 일, 그리고 제가 이일에 참여했던 것이 내 생애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방송사 경영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풍토속에서는 방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전직원에게 전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8년 민주화 바람속에서 창립된 초대 경영사원 협회장 당선과 KBS·MBC 방송 경영행정인 연합회장직을 맡아 방송경영의 위상정립과 외부의 간섭없는 자율 경영을 위한 힘겨운 노력, 그리고 각 협회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창립함으로써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가 방송민주화와 권력기관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KBS독립을 일궈 세웠던일, 그리고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행한 '품위 있고 절제된 발언' 등등이 가슴 한구석 뿌듯한 감격을 새겨 놓았습니다.

노무부장 재직시 험뜬없는 노사분쟁으로 사무실 소파에서 직원들과 낱밤을 샌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사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지년간 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듯 떠오릅니다.



요즘 어떠세요?

趙根濟 회우와 茶 한잔 나누며

"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걱정이예요. 대체 작물도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농부로 변신한 趙根濟 회우의 요즘 근심거리다.

KBS에서 30여년 동안 근무하다 경영위원직을 끝으로 퇴직한 趙 회우가 밭을 갈고 과수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가 된 것이다. 지난 97년, 50년 만에 경북 청송군 안덕면 북2리로 귀향한 趙 회우는 올해로 꼭 9년째를 맞았고 그동안 포도와 토마토 등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해 판매하면서 재미도 봤고 농원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기업농으로 육성했다.

가족들 반대속에 단신으로 귀농

"96년 3월에 퇴직하고 난 후에 퇴직 동료들과 모임도 갖고 등산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해봐야 생산성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등산해서 땀을 흘리느니 차라리 농사나 지으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내려 왔죠."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데 나이 60에 접어든 趙 회우는 오히려 땅을 파겠다고 농촌으로 간 것이다.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제 편하게 지내지 무슨 소리냐"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은 가족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97년 12월 혼자서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내려 왔다.

친척집에 기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던 6천여 평의 땅에다가 나이트 사람이 힘이 덜 들면서 할 수 있는 것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이 컸다. 무엇보다 팔지 못해서 생긴 손해가 너무나 컸어요." 趙 회우는 영농 첫해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래도 포도 재배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했다. 그 결과 지금은 유기농포도 재배에 있

50년만의 귀향, 포도원조성 새삼 열어



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포도를 재배하기로 했다. 1200여 평의 비닐하우스에다 유기농 재배를 하기로 하고 유기농협회에 가서 교육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거봉포도 나무를 가꾸었다.

포도즙 공장을 설립, 기업화 해

"농사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문외한인데 아무리 교육을 받고 남 하는 대로 따라해 봐도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잇따릅니다. 수확한 포도가 터지는가 하면 맛 좀 보라고 서울 친지들에게 보냈는데 터져서 먹을 수가 없디지 됩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어서는 남들 못지않은 전문 지식을 갖춰야 했다.

趙 회우가 설립한 '淨土유기농포도농원'에서는 3천여 평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7톤의 포도를 수확하고 있고 요즈음 웰빙 붐을 타고 잘 팔려나가는 토마토도 그에 버금 갈 만큼 생산하고 있다. 또 규모는 작지만 포도즙을 가공 생산하는 공장인 '보현천식품과즙가공소'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 의해 품질이 인증된 그의 브랜드인 '淨土포도'는 전국의 유기농 판매점에서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포도철인 8월 하순과 9월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의 유기농

판매점으로 포도를 수송하고 있다.

趙 회우는 지난 겨울 새로운 실험에 착수 했다. 그것은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에 양파를 심어서 양파즙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잘 되리라고 그는 자신하고 있다.

趙 회우의 귀농을 반대하던 부인 金鮮子씨가 3개월 후에 합류하면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서 지금은 유기농협회 안덕지회장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지회장이자 趙 회우는 "안사람이 유기농협회 회로나 토론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지회 활동을 하니가 유기농재배나 판매에 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돼 큰 도움이 된다."면서 "집사람은 유통 담당, 자신은 생산 담당"이라며 흐뭇해한다.

귀향살이에 친구들이 그리워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주해서 살아 온 趙 회우는 농사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나 동경 같은 그리움 때문에 귀농을 결심했지 농사나 짓다가 도시로 나가 살던 사람이라면 귀농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요즈음의 농촌 실정을 걱정한다.

농한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울의 친구들 모임에 참석한다는 趙 회우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위로 자르면서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궁금하고 때로는 소외감도 느끼지만 일을 하다 보면 다 잊게 되는데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은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한다

글 : 윤기로 / 사진 : 이종문



방송비평

안 평 선 회우
(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사랑의 리퀘스트 400회특집>

- 방송 : 06. 2.19(일)
- PD : 오세영 · MC : 김병찬, 김진희
- 연출 : 오정근, 조성호, 이선민

1997.10.24 첫 방송. 8년동안 503억여원 모금, 4144명에게 지원. ARS 성금이 412억원으로 "060-700-0600"은 우리사회의 기운을 높이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번호로 각인되었다.

· '파키스탄 비시암 난민촌' : 김기수(개그맨), 대학생, 고3생, 마수드카리드 주한대사 부부출연으로 외교적인 성과.

· '바다' (가수)양이 7년만에 만난 차미란(25)양 모녀는 밝고 희망찬 모습이 반가웠고, · 현숙(가수)과 신희영 교수팀이 러시아 고려인 마을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박 아무투르(18)군을 만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 누나의 취업까지 알선했다. 이 시간에 출연하는 사람들은(연예인등) 모두가 천사로 보인다. KBS는 시청하는 국민들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BS 스페셜>

- 방송 : 06. 1.28(토)
- PD : 김무관 · 글, 구성 : 오정요
- 연출 : 유동중

심청, 바다를 건너 돌아오다
-관소리 400년의 완성-

파격적인 설 특집집 이색소재였다. 17C 중엽에 시작된 관소리 12마당중에서 '심청가'를 구조해체하여 정치학적, 종교학적, 철학적으로 분석 해석하였다.

소설 '서편제' (이청준)에서 오페라 '심청' (윤이상)까지 문학과 음악을 적절히 교차 연결하여 흥미로웠고, 주제를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의 해결로 보고, '죽음'을 우주의 생명력의 지평으로, '용궁'을 피안의 세계, 유토피아로, '심청' (영웅)을

교육하고 있다. 국악을 단순 기예가 아닌 학문으로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발표무대로서, 다양한 종목에 높은 수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의미있는 특집이었다. 소재가 제한적일 것 같지만 꾸준히 발굴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완성,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높이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

<설날특집 열린음악회>

- 방송 : 06. 1.29(일)
- 기획 : 전진국 · 연출 : 서태룡
- MC : 김경란

"사랑의 리퀘스트 400회 감사합니다"

중세기의 구원의 여성으로 해석한 견해가 이채롭고 재미있었다. 심청이 아스팔트 대로로 나오는 것으로 오랜 여행을 끝내면서 환생과 자유로 연출해 주었다.

어찌했던 관소리는 관소리인 것이고, '심청가' 진가는 온통 눈을 뜨게하여 암흑세계를 활연 광명천지로 밝히면서 대미를 장식하여 통쾌감을 폭발시키는데 있다.

<방학특집 국악한마당>

- 방송 : 06. 2.5 ~ 19(일)
- PD : 박태호 · MC : 김연지
- 연출 : 이상훈, 최공섭

1. 대학의 소리꾼들 2. 대학의 춤꾼 3. 대학의 재비들 4. 고교생(예고) 1959년 서울대 음대 국악과가 신설되고 현재 전국 대학에 22개 국악과가 국악을

최근순(경기도립국악단) 김권식(경기도립리듬양상블)의 '몽금포타령' '옹헤야' 오프닝 넘버가 간드러지지 않고 역동적이어서 설 특집 개막이 활기 넘쳤다. KBS인입사원들의 인사는 약간 멋쩍은 순서이지만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동요 메들리를 합창해서 인상이 좋았다. 여성 노래꾼 이은미의 열창에 이어서 김도향과 조영남이 함께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반가움과 중량감으로 무대와 관객석을 꽉 채워주었다. 개막과 클라이맥스, 폐막이 조화를 이룬 만족스러운 구성 연출이었다.

<가요무대>

- 방송 : 06. 1.30(월) 2.13
- 연출 : 김승우 · MC : 전인석
- 지문 : 김점도, 김진성

· 설 특집 '4인 4색: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머나먼 고향'으로 시작, '모정의 세월' 합창으로 끝냄. 각자의 데뷔 히트곡과 옛가요로 구성. 4인 4색이라 했지만 유사한 색깔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이벤트로 느낄 수도 있었음.

· 졸업 : 모처럼 유리씨스터즈 '꿈나무'로 산뜻하게 출발, 출연가수들의 노래 연습이 충분한 것으로 느껴졌다.

'섬마을 선생' (이미지)과 '선생님' (조미미)을 졸업에 연관시킨 것은 무리한 점이 있었고, 최화준의 '하숙생' (85.11.25 가요무대)은 인생을 졸업한다는 의미인지?

<<북경에서 온 전화>>

2년 동안 방송비평란 20회분을 실려왔는데, 구시대 PD의 밝지도 못한 노안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라는 별 반응도 들어보지 못하던 중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베이징, 북경으로 부터였다. PD특파원 김규호 프로듀서.

사우회보가 해외특파원에게까지 우송된다는 것. 그래서 김특파원은 반가웠다 하고, 서울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복합적으로 가슴을 울렁이게 했다. 보람이었다.

매달 밀린 숙제 처리하듯이 이면지를 메꾸어 온것이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북경에서 온 전화는 부끄러움마저 스스로 잊게하는 보람이었다.

김규호 특파원!
'베이징 리포트'를 열심히 보겠소. 객지 생활에 댁내 평안하시기를...